

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문단지 지정 시 5년간 생산기반 지원... 가공시설 신규 최대 30억원 이내
이달 말까지 시·군 접수... 국내산 조사료 확대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조사료 재배 규모화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리고 가공·유통 기반을 확충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다.

공모 분야는 '조사료 전문단지'와 '가공·유통시설'로 나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중자단지 △는 하계조 사료 특구 등 5개 유형이다. 전문단지 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사일리지 제 조비와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배지보다 일부 사업의 국비 보조비율이 높고 자부담 이 경감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가공·유통시설 분야는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는 TMR(완전배합사료)

가공시설과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계와 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규 시설의 경우 30억원 이 내, 기존 시설 보완은 9억원 이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TMR 가공업체 등은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 8월 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 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9월 농림 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

품부는 서류·발표심사와 종합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공모에서도 전국 조사료 전문단지 신규 선정면적 1,000ha 가운데 40%인 399.8ha를 확보했다. 정읍 친환경농업농조합법인이 특화단지 230ha, 김제 동진강낙협이 광역단지 169.8ha에 각각 선정됐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내 조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도내 농업법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지난 2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도, 민선 9기 새내기 공무원 힘찬 출발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가족 등 300여 명 참석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임용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신규 공무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 공무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이원택 도지사의 축하발씀, 공무원헌장 낭독과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공무원 대표 2명이 공무

원헌장을 낭독하며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되새겼다. 이어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임용되는 공직자들로, 앞으로 도정 각 분야에 배치돼 행정 현장에서 도민과 만나게 된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어 "전북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도내 해수욕장 33만7000명 찾아... 개장 기간 안전사고 '0'

도내 8개 해수욕장 33만7천여명 방문... 개장기간 안전사고 없이 운영
9월 13일까지 안전관리요원 추가배치... 순찰·입수 위험 안내 등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지난 18일 모두 폐장한 가운데, 울여름 33만7,470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울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 속에서 이용객과 안전관리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점검과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총 34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평일에는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주말과 연휴에는 불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현장 중

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점검 횟수도 지난해보다 21회 확대했다.

특히 안전시설과 장비 관리상태를 비롯해 안전관리요원 131명의 배치·운영상황, 폭염 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전관리요원의 건강 상태와 이용객 열열질환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백사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이용객을 위한 임시 쉼터를 운영했으며, 응급의약품 비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한 현장 조치도 강화했다. 이러한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 도내 해수욕장에

서는 개장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도내 8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총 33만7,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6만7,472명보다 8.1% 감소한 규모로, 도는 7~8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폭염특보 등의 영향으로 일부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은 어린이풀과 워터슬라이드, 해안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피라슬 무료 대여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증가했다. 올해 선유도해수욕장에는 18만2,035명이 방문해 지난해 8만 1,692명보다 122.8% 늘었다.

도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관리를 지속한다. 오는 9월 13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해 현장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진입로와 해변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방송과 홍보활동을 통해 폐장 사실과 입수 위험을 알리는 등 폐장 이후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신형삼 전북자치도 해양항만과장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 관계기관과 안전관리요원,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전북 제조업 생산 7.9% ↑

주택시장에서는 6월 주택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0.21% 올랐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전주와 익산이 상승한 반면 군산은 하락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1.8% 전월세 거래량은 10.4% 증가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업종별로 엇갈렸다. 7월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I)는 98.1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8월 전망 CBI는 95.7로 전망치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2.0으로 전월보다 9.5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다만 8월 전망치는 84.9로 전월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심사는 소폭 개선됐다. 7월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3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과 소비지출전망 등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가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6월 전북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건설투자, 고용 등 실물 경제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와 설비투자 부진, 미분양주택 증가 등 내수와 투자 부문의 불안 요인도 함께 나타나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만호 기자

전북형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알린다

도, 수원컨벤션센터서 오늘까지 전북 고향사랑기부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정기부사업을 알린다고 밝혔다.

도는 박람회 기간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참여 방법 안내 △전북 대표 답례품 전시·홍보 △기부금 사용처 소개 △지정기부사업 및 기부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천연꿀, 참기름, 청차제품, 친환경 불솔 등 전북의 다양한 답례품을 전시하고 사과, 식혜, 김부각, 치즈 등

인기 답례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올해 모금을 시작한 전북자치도의 지정기부사업도 집중적으로 알린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현재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시금 △장제·고령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총 모금 목표액은 1억원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 관광캠페인, 공공PR대상서 '최우수상'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 캠페인,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관광 광고 캠페인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공PR대상은 공공영역의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시상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상으로 전북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캠페인의 기획력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인정받았다.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 캠페인은 전북의 관광 매력을 '맛·멋·밤·쉼' 네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경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오만호 기자

K-콘텐츠의 미래, 전북자치도에서 찾는다

26일 '2026 전북 콘텐츠 포럼 CONTENT : NEXT'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전북 콘텐츠 포럼 CONTENT : NEXT'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네스트, 전북 콘텐츠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창업, 계약·법률, 인공지능(AI), 콘텐츠 산업 트렌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포럼은△1회차 '콘텐츠 스타트업 생존기'(8월 26일 김동민 레블코퍼레이

션 공동대표·이정미 해너키친그룹 이사) △2회차 '콘텐츠 계약 상담소'(9월 30일,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회차 'AI 기반 콘텐츠 제작'(10월 28일, 이혜원 기어이 대표) △4회차 '콘텐츠 신인류'(11월 첫째 주 예정)로 구성되며, 1~3회차는 진흥원(전주시 덕진구 민성북로 21-26)에서, 4회차는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2026 전북 콘텐츠 포럼 CONTENT : NEXT'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